

창원국가산단 ‘항공엔진특화단지’ 지정… 경남, 7731억 투입

경남 첫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만관 3조대 투자·전문인력 양성 추진
2035년까지 매출 6조·수출 3조 목표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가 국내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이끌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경상남도는 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974년 지정된 창원국가산단이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경남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반도체와 이차전지·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2024년 바이오 분야까지 지정됐지만 방위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산 분야 지정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신규 지정을 결정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경상남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전경.

/뉴시스

도는 올해 2월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해 소위원회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

항공엔진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 독자 기술을 확보한 고난도 산업이다. 핵심 소재와 부품이 국제 수출 통제의 영향을 받는 만큼 기술 확보가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로 꼽힌다. 국내 핵심품목 국산화율은 현재 2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해 2040년까지 약 3조3000억원을 투입해 1만6000파운드포스급 차세대 터보팬 엔

진 개발을 추진한다. 본사업 착수 목표 시점은 2028년이다.

창원국가산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업체 43곳이 집적돼 있고 재료연구원도 자리 잡고 있어 항공엔진 산업의 핵심 기반을 갖췄다. 경상남도는 이 같은 제조·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진주의 시·학·연구 인프라와 사천의 완제기 산업 기반을 연결해 지역 항공우주산업의 협력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2036년까지 7731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단지 참여 기

업들도 2조28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산업 기반 확충에 힘을 보탠다.

전문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경상국립대는 특성화대학원 공모에 선정돼 172억원을 확보했으며 2031년까지 석·박사급 인력 12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산업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에 더해 고급 인력 공급 체계까지 구축하는 셈이다.

경상남도는 2035년까지 매출 6조원과 수출 3조원을 달성하고 신규 고용 8000명 이상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항공엔진 핵심품목 국산화율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최단립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대한민국 첨단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위한 새로운 출발”이라며 “기업·대학·연구 기관의 역량을 모아 기술 개발 성과가 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첨단항공엔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metro

지역 이모저모

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

파주시가 2027년 7월부터 파주시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시는 현재 경기도·고양시·김포시와 통행료 지원 방식과 비용 분담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시간은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와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파주·고양·김포에 등록된 차량이 해당 시간에 일산대교를 이용하면 각 시가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진주시

‘썸데이 진주’ 참가자 모집

진주시가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만남을 지원하기 위해 제24회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썸데이 진주’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6일부터 16일까지 진주시 청년온라인 플랫폼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31~39세 미혼남녀이며 행사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지수 송산마을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공동 활동을 통해 서로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9일 ‘수비능이버섯축제’ 개최

영양군이 가을철 대표 임산물인 능이버섯을 앞세워 지역 농·임특산물의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5회 수비능이버섯축제는 먹거리와 직거래 판매장에 체험 프로그램을 더해 방문객에게 수비의 가을을 다채롭게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수비면의 산림에서 자란 능이버섯은 독특한 향과 맛으로 지역의 가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군은 축제 기간 먹거리장터와 농·임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해 지역 먹거리의 매력을 알리고 생산농가의 판로 확대를 도모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도시공사

‘한국공항인프라 창립 포럼’ 주최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7일 부산한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6 한국공항인프라 창립 포럼’을 한국공항인프라학회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항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주제는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형 가덕도신공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이다.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미공항 인프라 확장·고도화 전략과 AI·스마트 기술 기반 공항 시설물의 신소재 적용 연구 등을 발표한다.

/부산=이정민 기자 metrobusan6@

충남도,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 총력

내년 3월까지 특별방역 대책기간 “청정 충남 위해 행정력 집중할 것”

충남도가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도는 내년 3월까지를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 방역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한 전방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8월 해외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해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철새도래지와 가금농가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한다.

도는 시군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등 24곳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상황실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방역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선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충남도는 내년 3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대책은 ▲철새도래지 20개소 52지점 축산차량 등 출입 통제 ▲오리농가 일시적 사육 제한(2026년 11월~2027년 2월) ▲전국 ASF 위험지역 42개 시군 돼지 반입 금지 ▲전 주기 취약요인 검사·점검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출하 제한 등이다.

홍충완 행정부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을 막고 청정 충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 방역 대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과 백신 접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흥군, 노인일자리 사업 실적 ‘우수’

고흥군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고흥군은 전남광주통합특례시 권역 내 유일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노인일자리 사업의 우수한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행기관 부문에서도 고흥군의 성과가 이어졌다. 고흥군노인복지관은 공익활동·공동체사업단 부문에서, 고흥시니

여클럽은 공익활동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흥군은 사업 수행기관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일 자리를 발굴하고, 참여자 모집과 교육, 활동 관리,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와 소통을 강화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에 힘써왔다.

/고흥(전남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경기도, ‘AI 자립비서’ 시범사업 운영

AI·IoT 활용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경기도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장애인의 안전·건강 관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AI 자립비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AI 자립비서’는 자립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 욕구에 맞는 AI·IoT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과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반복적인 행정업무에도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대상은 도내 자립지원주택 194호에 거주하는 장애인 252명과 지원 인력이다. 도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AI 자립비서 이미지.

/경기도

등 자립지원주택 운영기관 46곳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주요 서비스는 AI 활용능력 향상과 여가활동 지원, 위기감지·응급대응 및 안부확인, 식단·복약 등 건강관리, AI 말벗·상담을 통한 정서지원, 인지향상 훈련, 보이스피싱 예방과 금융·계약 관련 위험요소 확인 등이다.

/경기=김예원 기자 ywon@

부산서 ‘한류 포럼·체험 빌리지’ 열린다

케이브릿지인터, 19일부터 행사

케이브릿지인터네셔널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해외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체류형 한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글로벌 유스 한류 포럼과 문화·관광 일정을 연계해 부산을 외국인 한류를 배우고 즐기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행사는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와 누리마루 APEC 하우스 등에서 열리며 제1회 글로벌 유스 한류 포럼과 한류 체험 빌리지(K-Experience Villa)로 구성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36년간 근무하고 코리아컨벤션뷰로 실장을 역임한 김기현 연산대학교 교수가 케이브릿지인터네셔널 대표로서 사

업을 총괄한다.

19일 개최되는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인사 300명이 참석해 한류와 관광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성용락 정석학원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정길화 동국대학교 한류융합학술원장이 한류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지낸 조현래 한성학원 이사과 김태훈 극동대학교 교수, 이재성 경희대학교 교수도 토론에 참여한다.

팔로워 약 500만명을 보유한 멕시코 출신 배우 겸 가수 안드레아 데 알바는 중남미 한류의 인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중국 왕홍 동샤오펜을 비롯해 일본·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국 인플루언서 10여명도 참가한다.

/부산=이도식 기자